

KIHA NEWS

대한산업보건협회

2024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기총회

회원 726명 출석,

2025년 사업계획 및 정관 개정 원안 가결

협회는 지난 12월 10일 오송사옥 1층 대강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재직회원 877명 중 726명이 출석하였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과 정관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논의를 거친 끝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연구원

제4회 직업환경연구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보건안전연구원은 11월 28일 협회 본부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제4회 직업환경연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의 올해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협회 연구원들은 분석실 운영 실태 조사와 조리용 위험성평가 기법 연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작업환경측정 DB 분석과 소음 노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연구성과 공유를 확대하며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24년 보건관리자 네트워크 및 일터안전포럼 협회 본부에서 열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12월 3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에서 대전·세종·충청권역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보건관리자 네트워크 및 일터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백헌기 회장,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채창열 본부장, 산업보건센터 김양열센터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권역 보건관리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백헌기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건관리자 여러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협회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6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2월 4일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 축사를 전하며 안전협회의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기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백헌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다. 안전협회는 기념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신종 위험의 출현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은 'NEW KISA'를 선포하였다.



KIHA NEWS

경북지역본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2024년 12월 12일, 대구시 수성구 라온제나호텔 5층 에페르넬홀에서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안전보건공단 주최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이 진행됐다. 경북지역본부 오웅배 본부장, 대구지역본부 임오현 국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발표와 특강이 진행됐다.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발표, 안전공단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추진내역' 소개 및 중앙대학교 문광수 교수의 안전문화 특강 '조직행동 관리, 안전심리가 진행됐으며,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내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성과가 보고되었으며, 사업주, 노동자, 주민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 수립, 시스템 조직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통한 동료 간 상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동운 경북지역본부 운영지원팀 팀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 및 우수활동 기관 포상

2024년 12월 6일,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 및 우수활동 기관 포상식이 어반브룩 3층 어반리움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본부 김훈철 본부장과 나수진 국장이 참석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헌신한 단체와 개인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진경 과장은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에도 나수진 국장이 전남서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일원으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청 목포지청장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본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훈철 본부장은 "이번 표창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보건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향후 활동에도 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자영 광주지역본부 사내기자



광주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윤리·인권 경영 릴레이 캠페인 참여

11월 27일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에서 열린 '윤리·인권 경영 릴레이 캠페인'에 광주지역본부 김훈철 본부장과 나수진 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권역 내 재해 예방 기관들이 참석하여 인권 존중 및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인권경영 실천 선언을 공유하고,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전사적으로 윤리·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김훈철 본부장은 “상호 존중과 인권 경영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렴과 인권을 중시하는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육자영 광주지역본부 사내기자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안전교육 실시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1월 22일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소속 시설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 기관이 체결한 ESG 사회공헌 협약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립요양원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는 반복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대전세종지역본부는 향후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임선숙 대전세종지역본부 사내기자



KIHA NEWS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보건관리국 인숙교 팀장,
산업재해예방 유공 대상자 선정

충북지역본부 보건관리국 인숙교 팀장이 2024년도 하반기 산업재해 예방 유공 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11월 21일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에서 진행됐다. 인숙교 팀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는 데 있다. 인숙교 팀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을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현 충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4대 금지 캠페인 전개

2024년 11월 21일, 충북지역본부는 충북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일원으로 청주 청남대에서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매월 진행되는 ‘안녕들 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30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안전수칙을 알렸다. 김대식 충북지역본부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하며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현 충북지역본부 사내기자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지역본부는 12월 6일 청주고용노동지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청주시 복대체육근린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혈압, 혈당 체크와 인바디 검사 등 무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물티슈, 밴드, 핸드크림 등을 나누어주며 예방 방법을 홍보했다. 방문객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아 유익했다”라며 캠페인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용현 충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전북지역본부

TBN 전북교통방송,
작업환경측정제도 집중 조명

지난 11월 29일, TBN 전북교통방송 <전북 매거진 안전더하기>에서 전북지역본부 장명일 선임과장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장 과장은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고 설명하며, 측정 대상과 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발생 가능 작업이 측정 대상이며, 법적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함께 고민하며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곽근영 전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전북지역본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북지역본부는 12월 11일 강영철 본부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5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정부 부처와 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영철 본부장은 11월 28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유영순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배규환 학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박태훈 지사장을 다음 참여기관으로 지목했다. 강 본부장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와 긍정양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근영 전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전북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 예방 결의대회 및
협의회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12월 6일, 고용노동부(전북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와 함께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 결의대회 및 협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전현철 지청장을 비롯한 많은 안전보건 유관기관 및 사업장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강영철 본부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오후에는 전북지역 화학공장협의회 회원들의 체육대회도 진행됐다. 전북지역본부는 사고에 대비하여 의료지원 인력 2명을 배치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화학공장 사고 감소를 위한 결의 다짐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곽근영 전북지역본부 사내기자



KIHA NEWS

경남지역본부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노동자 건강 보호 앞장 및 우수활동 기관 포상

경남지역본부는 12월 6일 마산자유무역지역 1공구 자유2교 앞에서 출근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김철한 본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한랭질환 예방 방법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겨울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성 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경기서부지역본부

안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지역사회 발전위한 MOU 체결

2024년 12월 3일, 경기서부지역본부와 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학과 상호 발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및 인재 양성 분야에서 두 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서부지역본부는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안산대학교 간호학과가 제공하는 정보를 성실히 적용하고 협력하는 한편, 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재능 기부와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문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중 경기서부지역본부 사내기자



부산남부지역본부

충남센터

제주센터

부산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

2024년 12월 10일, 부산남부지역본부 산업위생국과 부산관광공사 안전감사팀은 작업환경 개선, 위험성평가, 교육 및 건강검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부산지역 관광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경 문제와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교육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박장종 산업위생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부산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배 부산남부지역본부 사내기자



산업단지 릴레이 캠페인 실시

충남센터는 11월 2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풍세산업단지관리단과 함께 풍일반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업장 현장 지도와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식 개선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번 캠페인은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충남센터는 앞으로도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민지 충남센터 사내기자



온기를 전하는 소외계층 나눔축제 후원

제주센터와 노동조합은 12월 5일 열린 ‘온기를 전하는 소외계층 나눔축제’에 후원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번 축제는 겨울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후원 활동이 펼쳐졌다. 후원품은 생활용품, 동계용품 등을 포함한 나눔키트로,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센터는 구급함을 후원하고, 노동조합은 후원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두 기관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작은 나눔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준 제주센터 사내기자



KIHA NEWS

제주센터

산업재해예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제주센터 강성준 과장은 12월 12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작업자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지사 표창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 내 안전 의식을 제고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수여된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수상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준 제주센터 사내기자



제주센터

보건관리자 및 작업환경측정 담당자 간담회

제주센터는 12월 12일 지역 내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센터가 주관하여 보건관리자의 역할 강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제주센터 이원구 산업위생국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 담당자들을 포함한 보건관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사업장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관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강성준 제주센터 사내기자



한눈에 보는 고객응대 대응요령

방문민원
전화민원



01 폭언(욕설, 고성, 협박), 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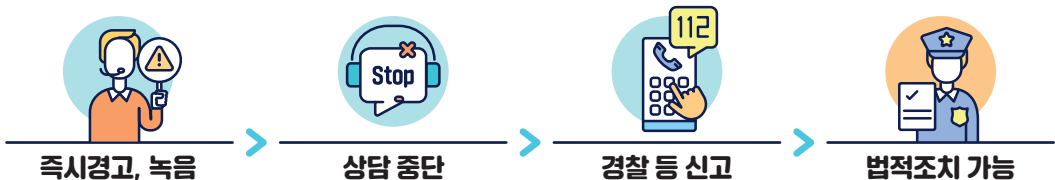
- 욕설·폭언 등을 중지 요구(2회 이상)와 녹음(녹화)고지 후에도 계속할 경우 안전보건감독자(부장)에게 도움 요청
※ 민원상담자가 민원인을 다른 장소로 안내하여 상담
- 민원인에게 폭언 등은 모욕죄 및 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후에도 계속될 경우, 상담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02 폭행, 기물파손, 난동, 위험물소지 및 자해



- 민원인이 폭행 등 상황을 일으킬 경우 안전보건감독자(부장) 또는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상담을 중단
상황 대응조가 적극 개입하여 대응하고 경찰에 신고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친고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성희롱(방문, 전화)



-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지속하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상담내용 녹음 이후에도 성적 발언을 계속하면 상담이 불가함을 안내 후 상담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희롱 관련 형법상 법 규정 없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강제추행죄가 적용 가능 / 10년 이하의 징역



②, ③의 경우 상황
발생 즉시 안전보건감독자(부장)
또는 동료직원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